

평신도 사도직 취임 선서 정신, 본당설립 25년사 대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며, 청소년분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캠프 행사 설명 후 주임신부님께서는 '사목위원회와 각 단체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 시 반드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마쳐야 한다. 2020년도 본당 달력에 전 교우들의 사진을 넣기 위해 개인 및 단체사진 또는 가족 2명 정도 촬영된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전 신자 촬영은 8월 18일 11시 교중미사 후 성전에서 있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이날 참여를 부탁드리고, 내년은 본당 설립 25주년인데 25년사를 만들기 위해 교우들의 성당 자료 사진을 모아야 하겠지만, 큰 비용이 들고 교우들의 각 개인 생각이 달라 연혁사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많으므로 책자 발행은 하지 않고, 최대한 사진 자료를 모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간단하게 기록한 후 화일로 편집하여 홈페이지나 CD 또는 USB에 저장해서 필요로 하는 교우들에게 복사하여 배부했으면 좋겠다. 또한 본당 부채는 많은데 수입은 계속 줄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평신도 주일 전까지는 좋은 방안을 구상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란 말씀 후 마침 기도와 축복으로 사목회 7월 월례회의위원회를 마쳤다.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7월 21일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201호(요한실)에서 사목협의회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사목위원회 분과별 서면보고와 당면 문제를 협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사무장 공개채용에 여러 명이 지원하여 서류전형으로 몇 명을 선정하여 7월 26일(금) 면접하여 이달 말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사목회장의 경과보고와 여성구역분과 음식판매 전반기 결산보고 및 계획발표에 이어 전례분과에서 8월 15일(목) 성모승천 대축일 전례는 오전 6시 30분과 11시에

어린이 저학년 신앙학교 개강 교사리슨 추억 만들기



시흥4동 성당 청소년분과는 어린이 저학년 신앙학교 개강을 7월 20일(토) 오전 9시부터 정미랑(데레지나) 수녀님의 지도로 어린이 15명과 교사 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관 그리스도 왕 홀과 실외주차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저학년 어린이에게 성장하는 과정에 신앙의 기초인 성전에서 무엇인가 기억과 추억을 심어주기 위하여 엄마가 만들어 주는 주먹밥과 야채 샐러드, 음료수 칵테일을 수녀님과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또 엄마들의 만들어 주는 정성을 어린이들에게 가슴 깊이 새기며 체험하는 놀이를 하였고, 외부 간이 풀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물총놀이, 수영 등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